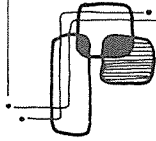


## 무좀, 정말 치료될 수 없나



국 홍 일  
국홍일피부과의원 원장

### 쉽게 치료되지 않고 재발되는 이유 와 대처방법

병은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프면 얼굴이 찌푸러지고 상처가 나며 짓무르고 신체조직을 해쳐 흉하게 만든다.

인체 제일 바깥층인 피부에 병이 생기면 더욱 흉하다. 피부는 인체 건강의 거울이요, 피부의 아름다움이 곧 그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특히 여성들은 이 피부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혼을 쏟는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거울을 보고 피부를 가꾸고 병이 나면 상처없이 치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피부에 병변을 일으켜 흉하게 만드는 원인은 많다. 불에 데고 찢어지는 외상과 화상, 세균이나 박테리아 혹은 곰팡이에 의해 발

병되는 각종 피부병, 햇빛 속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고 색깔이 변하는 색소질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에서도 무좀이라는 곰팡이에 의한 피부질환은 대단히 번거롭고 가려우며 대단히 흉한, 대표적인 피부병이다.

가려워서 긁어 통통 부어오른 발을 흉하게 내놓아야 하는 이 피부병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건이 악화의 요인이 되어 구두도 제대로 못신게 하는 생활상 불편증상의 제1호 공적(公敵)이다.

「구두문명의 사생아」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 무좀은 습기 많고 온도 높은 여름에 악화되고 노출될 기회가 적은 현대인의 발에 숙명적으로 생겨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곰팡이(細菌) 중에서 피부 각질층 안에 침투하여 기생하면서 피부병변을 일으키는 진균은 비교적

소수이다.

이들 진균은 각기 자신의 고유한 병변을 보이기도 하나 어떤 곰팡이는 부위에 따라 다른 병변을 보이기도 해 편의상 체부백선(體部白癬), 수부백선(手部白癬) 등으로 분류하고 무좀은 발에 생긴 백선증 즉, 족부(足部) 백선에 속한다.

똥똥한 사람에게 특히 잘 생기는 이 증상은 그 가렵고 흉한 발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고통을 주며, 수많은 약이 개발됐고 TV에도 「무좀이여 안녕」이란 선전문구까지 동원되었으나 영 떠날줄 모르는 파렴치한(?) 질환으로 남아 있다.

운동선수의 발(Athlete's foot)이라는 고급스런 닉네임까지 있는 이 질환은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 터지는 형(型), 발가락이나 발 옆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서 가려워지는 형과 염증과 가려움증은 거의 없으나 발이 쭈글쭈글 보기 흉해지고 발 뒤꿈치가 두꺼워지는 3가지형으로 나뉜다.

이들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은 발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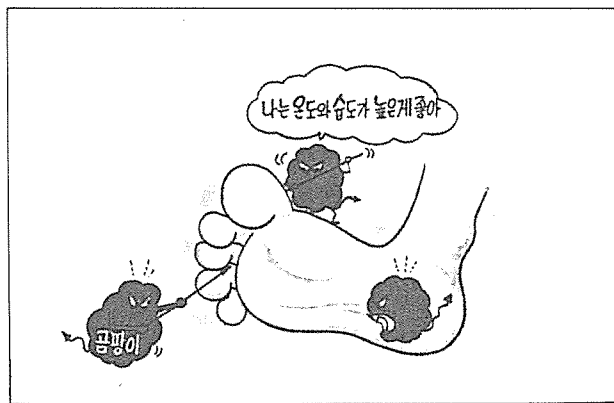
사이가 하얗게 진무르며 심하면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찢어지는데 아주 가렵고 고약한 냄새가 나며 주로 네번째 발가락사이가 제일 잘 침범된다.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 발가락 끝과 발밑(足底)으로 퍼져나가고 조그만 물집이 수없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가려움증이 재발된다.

여기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면 손발에 땀이 심하게 나고 따뜻한 환경이 겹쳐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배지(培地)를 형성, 2차세균감염까지 되며 붓고 해지는 등 발의 흉칙함이 말이 아니다.

곰팡이는 발가락 사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발바닥 안쪽에 바늘구멍만한 물집이 생기고 건조되어 형성된 두꺼운 황색딱지가 생겨 발이 아주 지저분하게 된다.

심한 경우 발바닥 전체에 퍼지는 수도 있고, 발등은 잘 침범하지 않지만 열대지방의 눅눅한 습지에서 오래 근무한 군인에게서 발등까지 침범한 예가 있다.



무좀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진무르고 심하면 사이가 하얗게 찢어지며 아주 가렵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



만성적 무좀은 약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치료되지 않는다. 맨발의 생활자에게는 무좀이 없거나 있어도 증상이 쉽게 나타나한다는 점에 착안, 가능하면 구두를 벗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사실 곰팡이는 눅눅하고 햇빛이 잘 안드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피며 인체에 예외는 아니다.

오랜 시간 열대의 호우속에서 참호생활을 한 군인의 경우 몸 어디서나 곰팡이가 피어, 햇빛 나는 날 옷을 털면 몸에서 곰팡이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곰팡이는 환경이 바뀌면 병변을 일으키지 않고 소멸되는 수도 있고 병원성(病原性) 곰팡이는 증상을 발생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들보다 더욱 만성적인 절차를 밟는 무좀도 있다. 주로 각질층이 두꺼운 부위에서 은백색의 비늘이 부스러져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는데 피부를 주글주글하게 만들어 보기싫게 만드는 것은 다른 증상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긁어 2차감염을 받으면 발이 부어 구두도 못 신게 되는 이들 증상은 다른 부위의 백선증과는 달리 병변발생의 환경과 치료에 대한 끈기부족으로 치료에 실패하고 재발과 재감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아예 낫지않는 병으로 생각하고 단념하기

일쑤다.

우선 발생부위가 구두에 갇혀있는 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꼭 끼는 신발은 발가락을 붙게 만들고 온도를 높이며 땀을 내게 한다. 체액도 아래로 몰려 발이 끈적 끈적하게 되는데 통풍이 되지 않아 그 사이에 끼인 곰팡이의 천국이 된다.

금방 낫는다는 약도 바르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어 낫는 듯하다가 치료를 중단하면 금방 재발·재감염된다.

맨발로 사는 적도지방 사람들이나 쥘신이나 신던 옛 우리 선조들에게는 이 골치아픈 무좀이 심하지 않은 걸로 보면, 무좀은 발을 구두란 감옥에 가두어 놓은 문명생활의 필요악이며, 자업자득인 셈이다.

극히 만성적인 무좀의 치료는 약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낫지 않는다. 우선 맨발의 생활자에게는 무좀이 없거나 있어도 증상이 쉽게 나타나다는 점에 착안, 가능하면 구두를 벗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

하루종일 앉아 있는 직장생활자라도 출근해서는 가능하면 슬리퍼를 신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무좀, 난치병이긴 하되 결코 불치병은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정복된 마당에 곰팡이가  
 '정복되지 않는 인간생활의 무법자' 일 수는 없다.



양말도 땀을 흡수하지 못하는 나일론 양말을 신지 말고 면양말을 신어, 생겨난 땀이 흡수되도록 한다.

퇴근 후면 반드시 발을 씻어 발의 위생을 지켜주고 무좀으로 훼손된 피부조각이나 비듬은 약간 거친 수건으로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거해 주고 자극성이 없는 파우더를 뿌려 습기를 충분히 제거해 주도록 한다.

이런 섭생을 지키면서 적절한 약물을 도포하면 무좀은 낫고 재발·재감염은 안된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약을 바르고 발의 위생을 지키지 않으면 곰팡이에게도 면역을 길러줘 호전과 악화가 되풀이되는 사이결국 만성으로 이행된다.

수없이 나와 있는 항진균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 가려움증이 가셔서 나온 줄 알고 치료를 중단하면 안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치료제중 가장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은 그리세노플빈이다. 이 제제 500mg을 하루 2회로 나누어 음식과 함께 2~3주간 복용하

면 현저한 증상의 개선이 있다.

그러나 이 경구투여제는 간장 및 위장장애가 있으므로 엄격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톨나프테이트나 할로프로진제제를 포함한 크림이나 셰이크로션을 발라주면 좋다. 2차세균감염이 있으면  $KM_nO_4$ 나 뷰로 용액에 하루 2~3회 발을 담가두는 방법도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다.

무좀, 난치병이긴 하되 결코 불치병은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정복된 마당에 곰팡이가 '정복되지 않는 인간생활의 무법자'일 수는 없는 것이다.

워커나 장화 등을 계속 신고 있어야 하는 특수직업자나 '낫기는 하되 섭생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려운' 질환이라고 생각하며 환경과의 싸움을 병행해야 되는 질환임을 알아야 한다.

발등에 생긴 접촉피부염은 무좀이 아니다. 이때 무좀인줄 잘못 알고 항진균제를 바르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사족처럼 알아두자. ㉓